



Ewha Medical School News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여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딤후 1:9)

발행인 · 박혜영

편집인 · 박혜숙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전화 · 02-2650-5703~4

팩스 · 02-2653-8891

제 17 호 <2008. 9>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박혜영 신임 의학전문대학원장 · 의과대학장 취임 - 서석효 신임 교무부원장 취임 등 -



생화학교실 박혜영 교수가 2008년 8월 1일자로 신임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의과대학장에 취임하였다. 박혜영 학장은 생화학교실 주임교수, 교무부장, 의과학연구소장직 등을 역임하였다. 2008년 8월 1일자 신임 교무부원장에는 생리학교실 서석효 교수가 취임하

였으며, 서석효 교수는 의과대학 의학과장, 기획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기획부산하에 정보통신담당 기획차장을 신설하였으며, 신임 기획차장은 재활의학교실의 배하석교수가 임명되었다.

◆ 일반대학원 '의과학과' 신설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 의과학과가 신설되었다. 의과학과는 전일제 대학원생, M.D.-Ph.D.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석박사학위과정생을 모집하였으며, 이들에게는 전공에 따라 다양한 학위가 수여된다. 의과학과 참여교수진에는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수가 포함되며, 내부 평가기준에 의해 교수진 선정 및 지속적인 평가를 해나갈 예정이다.

◆ 2008년도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08년도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에 MD-PhD에 3명, 기초의학전공의 1명 총 4명이 선정되어 등록금 전액 및 교육연구 개발비 등으로 연간 8천만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은 임상의학의 전문지식과 기초의학의 연구능력을 동시에 갖춘 의사 겸 과학자(medical scientist, physician scientist, clinician scientist)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의대/의전원 대학원생 국제교류 활성화

의과대학 국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여 본교에 요청한 결과 일부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의과대



학에서 안정적 국제 교류장학기금 조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본교에 기숙사 제공 및 본교의 국제교류기금 사용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박사 과정 저소득국가 학생을 배정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본교에서는 2009학년도에 한해 2008년 8월 MOU를 체결한 베트남 하노이 의대 본교 파견 학생에게 기숙사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 제1회 PBL 워크숍 개최

2008년 8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양일간 양평 대명 리조트에서 PBL 교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PBL 워크숍은 PBL에 대한 발전된 개념을 공유하고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개최되었다. 29일에는 PBL 수업의 개념과 원칙, 진행 등에 관한 강의와 소그룹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30일에는 Tutor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룹 토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PBL 워크숍에는 박혜영 대학원장, 이지수 PBL 위원회 위원장 외 PBL 위원 13명, 31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여 PBL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토론하고, 3개의 모듈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 제 8회 PALS (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 소아전문소생술) Provider Course 개최

2008년 9월 27일(토)부터 9월 28일(일)까지 양일간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주최하는 PALS Course가 의과대학 B동 이화 의학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PALS Course에는 기본소생술, 호흡, 순환, 리듬으로 구분되어 있는 Skill Station과 응급상황을 시연하며 토론하는 Case Simula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와 실기 테스트를 통해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번 과정에는 4명의 Instructor와 9명의 Provider 지원자가 참가하였다.

* 대외협력위원회 소식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이화의대 선교 후원 기금, 대외협력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약정문의 Tel: 02)2650-2893)

<2008년 7~9월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등 약정 현황>

이름	약정액	내용
7회 동기회 (권순자, 나문희, 박경원, 배옥자, 백은석, 서성숙, 심재순, 이경자, 장민희, 조순규, 천기순, 최운선)	5,000,000원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서연림 (의전원생 학부모)	10,000,000원	
안정자 교수	50,000,000원	산부인과학교실 발전기금

* 학생 및 교수 소식

1. 학생 소식

◆2008년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오리엔테이션, OSCE 시행 및 White Coat Ceremony



2008년 의학과 3학년 임상실습오리엔테이션이 7월 28일(월)~7월 31일(목) 4일간 진행되었고, 다음 날인 8월 1일(금)에 OSCE-1 시험이 의학과 B동 8층

(EMSC, PBL - Room)에서 시행되었다. 전체 92명의 학생들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 총 16문항을 수행하였다.

OSCE 시행 후, 오후 5시부터는 김목길 홀에서 학부모, 교수 및 선배들을 모시고 의학과 3학년 학생의 White Coat Ceremony가 거행되었다. 김종학 임상교무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의식은 손운산 교목실장의 기도와 의사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 성찰을 위한 동영상 상영 후에, 박혜영 학장의 인사 말과 서현숙 의료원장의 축사를 통해 의사의 길을 들어가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

이어 착의 순서로서 박혜영 학장, 서현숙 의무부총장, 김양우 목동병원장, 우경숙 동창회장, 이순남 전 학장, 김승철 의무부장 이 엄숙한 가운데 직접 의학과 3학년 학생 92명 모두에게 흰 가운을 입혀 주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세계의사윤리선언문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서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White Coat Ceremony를 마쳤다.

◆ 2008년 의학과 4학년 OSCE 시행



2008년 의학과 4학년 OSCE가 9월 20일(토)에 의학과 B동 8층(EMSC, PBL - Room)에서 시행되었다.

OSCE는 임상 실행능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 객관성에 역점을 두어 학생들이 일

련의 station을 돌며 문항을 수행하게 하는 시험이다.

이번 OSCE에는 전체 86명의 학생들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 한 문항 당 4분 30초씩 총 16개의 문항을 수행하였다.

◆이화의학 창간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는 이화의학 창간하였다. 2008년 10월 6일 창간호에는 박혜영 의과대학장/의전원장 인터뷰를 실었으며, 이화의학은 한학기에 2번 발행할 예정이며, 의대 학생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좀 더 키워주고, 각 학년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창간되었다. 앞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인터뷰를 실을 예정이고, 의료계의 소식들과 문화생활 등의 정보도 전달할 계획이다.

◆태안, 그 불편한 진실에 마주하다.

- 이화 내자리 찾기 캠프를 다녀와서

지난 겨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기름으로 얼룩진 바다의 모습도, 자원봉사자들의 발자국도 조금씩 희미해져가던 한여름, 태안은 성수기의 피서객들 없이 춤추는 파도로 우리를 맞이했다. 태안의료원을 중심으로 근방 보건소 몇 곳에서 짐을 푼 우리는 예방의학교실 하은희 교수님 지도아래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환경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검사들을 시행하였다. 검사가 끝난 뒤에는 태안사건 직후의 정부의 대응과 태안건강연구현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피해현황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다시 모인 이튿날 아침, 강당에 앉자 이내 나의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놓여졌다.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대책 종합추진상황' 이라고 투박하게 적힌 바탕체의 제목부터 객관적인 단어와 숫자들로 가득한 유인물을 보고 있자니 하품부터 나왔다. 두툼한 유인물과 그저 그런 이야기들로 길게 늘어질 것 같던 태안의 피해현황에 대한 강

의가 5분의 브리핑으로 끝나던 그 때,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리고 바로 그 때, 나는 내가 바탕체의 유인물을 보던 시각만 큼이나 건조하게 태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의원원장님의 낮은 목소리, 그것은 분명 활자화되어 보고될 수 없고 계량화되어 추정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였다. 태안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면 보상이 될까? 그들은 하루 아침에 평생의 생활터전을 잃었다. 이미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리라.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피해보상액을 저마다 차지하려다 보니 예전의 후한 인심은 온데간데 없고 싸움과 소란만 남았다. 경제문제로도 끔찍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공동체 파괴라는 가장 무서운 재앙의 모습이 마음으로 전해졌고, 나는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아니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다.

처음에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진단서를 내어주어도 염두가 나지 않아 나가는 길에 찢어버리고 마는 그들의 현실에서, 그리고는 국가에서 공중보건의로 겨우 모양새를 갖춘 태안의료원의 현실로, 마침내 우리는 어떠한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로 이어졌던 이야기들. 결국 나의 문제로 이어질 때까지 나에게 태안의 사고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들'의 문제에서 '나'의 문제로 시점을 바꾼 뒤에야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안쓰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몸을 실은 완행버스가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지려는 순간, 잘 닦여진 고속도로 대신 구불구불 국도로 오는 그 길이 마치 우리네 인생이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빠르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들에게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매 정거장마다 빼곡히 사람들을 채우고 느즈막히 터미널로 돌아온 완행버스는 한심한 선택 그 뿐 이리라. 차창 너머로 비친 또 다른 나에게 물어본다. 그렇다면 당신은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을 완행버스처럼 모두 보듬어 데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에 당신은 과연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가?

나는 어느새 바쁜 일상으로 돌아와 있다. 시원해진 바람과 함께 무더운 태안의 여름이, 내 무거운 고민이 잊혀지지 않기를. 泰安, 그 이름만큼이나 크게 안녕하기를 바래본다.

임유경/M1 starlightlucy@gmail.com

2. 교수 동정

◆손세정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소아과학교실 손세정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2009년판에 등재된다. 손세정 교수는 소아심장 분야에서 국내외 학술지, 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혜숙 교수, 학진 우수성과 사례 연구 선정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의 연구실적물이 「학술진흥재단 우수성과 사례」에 최종 선정되어 인증패 수여식이 오는 11월 21일 오전 11시 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우수성과 선정 과정은 우수성과 추천서와 근거 실적물을

대상으로 요건심사, (1차)전문위심사, (2차) 종합심사 등이 2개월 동안 진행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술진흥재단은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우수성과 포스터(on/off-line) 전시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박혜숙 교수는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의 2009년 판에 등재 인물로 선정됐다.

◆정혜원 교수, '불임극복 식이요법' 한국어판 출간



산부인과학교실 정혜원 교수가 하버드 의대 연구원들이 지난 30년 동안 연구결과와 전세계 의학저널의 임신 관련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집필한 '불임극복 식이요법(Fertility Diet)'의 한국어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1만8,000명의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식습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를 조사, 불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배란을 일어나게 하고 임신할 기회를 높여주는 자연적인 방법들을 공개하고 있다.

◆김상진 교수, 대한척추신경 외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신경외과학교실 김상진 교수가 9월 6일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 22차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인 '듀피 어워드(DePuy Award)'와 연구지원금을 수상했다. 이번

에 김상진 교수를 비롯한 영상의학과 임수미 교수, 신경외과 이태훈 전임의 등 연구팀은 '건강한 한국인의 요추에서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 (Degenerative findings and its affecting factors of 3-Tesla MRI of lumbar spine within asymptomatic volunteers in Korean)'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주웅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우수연구상 수상



산부인과학교실 주웅 교수가 지난 9월 26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산부인과학회 제 94차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siRNA로 유도된 종양억제 단백질인 P53의 복구를 통한 시스플라틴 항암제의 자궁경부암 치료효과 증강'이라는 제목으로 연제 발표를 한 주웅 교수는, 자궁경부암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항암제인 시스플라

틴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siRNA를 추가하였을 경우 항암효과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siRNA를 병합 투여할 경우 암 세포의 노화와 자멸사가 유도됨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주웅 교수는 “연구결과가 아직 임상적용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약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성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향후 여성암을 특화 육성할 계획인 이화의료원의 장기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므로 여성암 관련 연구역량을 점진적으로 보완, 강화 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의료원 소식

◆이대목동병원, 고도비만 환자 위한 비만수술센터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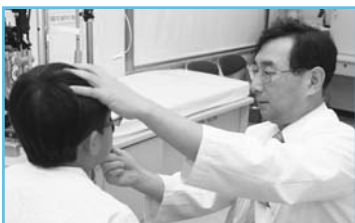
<http://cor.eumc.co.kr>
이화의료원이 8월 1일 이대목동병원에 비만수술센터를 개설하고 그동안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고도비만 환자를

을 위한 수술 치료 및 토달 케어 제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비만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체 질량 지수(BMI:Body Mass Index)가 30이 넘는 고도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설된 이대목동병원 비만수술센터는 고도비만 수술(베리아트릭 수술: Bariatric Surgery) 및 수술 후 당뇨병, 고혈압 등의 비만에 따른 합병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비만 클리닉 및 비만수술 관련 다양한 진료과와 협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비만수술센터는 외과 이주호 교수를 소장으로 가정의학과 심경원 교수, 심장내과 박성훈 교수, 정신과 김수인 교수, 호흡기내과 이진화교수, 이비인후과 이승신 교수, 내분비내과 오지영 교수, 마취과 이희승 교수 등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비만 환자 진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 비만수술센터(2650-5165), 상담: cor.eumc.co.kr

◆이대목동병원 교직원, 불우 어린이 사시 수술 도와 — 교직원이 모은 ‘이화사랑나눔 기금’으로 무료 수술



이대목동병원이 9월 6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서울 SOS 어린이마을’ 어린이의 사시 수술을 무료로 시행해 밝은

세상을 선물했다. 이번 수술은 안과 과장인 임기환 교수가 아동복지시설인 서울SOS어린이마을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 어린이(8세)가 사시로 인해 주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시력도 나빠지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전해 들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수술비와 입원비는 병원 교직원들이 평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월급의 일부를 기부해 2003년도부터 조성해온 ‘이화사랑나눔 기금’에서 쓰여 졌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2002년부터 희망 교직원들에 한해 자발적으로 매월 월급 중 일부를 이화사랑나눔 기금으로 조성해 불우한 이웃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8 이화의료원 한마음의 날’ 행사 실시



이화의료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화합의 장으로 ‘2008 이화의료원 한마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이번 한마음의 날 첫 행사로 지난 9월 12일부터 성화 봉송이 시작돼 전 부서를 순회하며 행사 붐을 조성했으며, 9월 26일에는 전야제로 간호부 주관의 일일 찻집 ‘한마음 카페(만남의 장)’가 열려 직원들끼리 커피, 음료, 다과를 즐기고, 포토 존에서 어울려 사진을 찍으며 직종간, 부서간 소통의 기회가 됐다. 27일에는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이화의료원 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기량의 장)’와 ‘장기자랑(화합의 장)’을 개최했으며, ‘한마음 장터’와 ‘바베큐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번 한마음의 날 행사는 행사 준비부터 마지막 장기자랑까지 술한 화제와 웃음이 만발했으며 경영진, 교수, 전공의, 간호사, 일반직 사원, 협력업체 직원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된 뜻 깊은 행사였다.

* 동창회 소식

◆가을야유회



참여, 화합, 역동의 동창회를 모토로 출범한 16대 집행부(회장 우경숙)가 두 번째 가을야유회를 2008년 9월 28일 세미원을 비롯한 양평일대와 이영주(21회 아주대병원 마취과교수)회

원 별장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j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www.ewhamed.ac.kr>) 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이화의대 동창회 사무실 Tel: 02)2650-5782)